

명의의 건강비법

— 선생님의 건강, 안녕하십니까? —

06. 위암에 대한 오해와 예방법。



1. 위암의 확산과 수술 및 재발률

1) 위암의 확산 종류

- 림프절 전이
 - 위 벽에 분포한 무수한 림프절로 전이
- 혈행성 전이
 - 위 주위에 있는 혈류를 따라 간, 폐, 뼈로 전이
- 복막성 전이
 - 복강 내 장기를 감싸는 복막으로 흩어져 소장, 대장, 난소로 전이

2) 위암의 확산 정도에 따른 명칭 구분

- 조기 위암
 - 암의 진행이 위벽 가장 안쪽에 국한된 단계
- 진행성 위암
 - 조기 위암에서 암이 전이되어 암세포가 근육층까지 침범한 단계

3) 위암 수술의 구성

- 위 절제
 -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를 절제함
- 림프절 제거
 - 암이 퍼져나가는 길을 막기 위해 림프절을 제거함
- 문합술 실시
 - 위를 전부 제거한 경우 식도와 소장을 연결함

1. 위암의 확산과 수술 및 재발률

4) 위 절제술의 범위

- 위 부분 절제술
 - 암의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암의 위치에 따라서 절제의 범위가 달라짐
- 위전절제술 (100% 절제)
 - 암의 위치가 위의 상부 혹은 위 전체에 있을 때 실시함

5) 위 절제 후 소화 관계

- 위 부분 절제술을 한 경우
 - 음식 저장 및 음식 물리적으로 혼합능력 면에서 위를 100% 절제한 경우보다 소화기능 좋음
- 위전절제술을 한 경우
 - 소화가 가능함
(방안 → 오랜 시간 충분히 씹어서 삼켜야 함
→ 간과 췌장, 소장에서 소화요소 분비됨)

6) 수술 후 재발 가능성 및 완치

- 조기의 암이라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은 있음
(위암 수술 후 재발률은 30% 정도임)
- 수술 후 2~3년 이내에 재발률이 가장 높음
(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음)
- 병기가 진행될수록 재발률이 증가하며 재발 시 여러 부위에 암이 퍼져나갈 수 있음

2. 위암의 오해와 진실

1) 위험 환자의 고기섭취 가능 여부

- 수술 후 체력 보강을 위해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함
- 다만, 소화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름기 제거 후 적은 양을 섭취할 것을 권장함
- 평소에 좋아하던 육류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함

2) 위암 수술 후 운동 여부

- 수술 후 가벼운 운동을 하면 미세한 가래를 배출하고 장운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합병증을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음
-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걷는 운동으로 체력 확보를 권유함

3) 위궤양이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 여부

- 우연히 위궤양 안에 암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를 많이 하지만 사실 양성 위궤양이 암으로 변하지 않음

4) 헬리코박터 위염에 대해 무조건적인 박멸의 필요성 여부

-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모두에게 제균을 권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제균은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있음

5) 위암의 유전 가능성

- 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가족 간 비슷한 식습관의 공유에 따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음

2. 위암의 오해와 진실

6) 위암의 오해와 진실

Q1. 위암 수술 후에는 고기를 피하고 채소 위주로 먹어야 한다? → X

-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섭취 할 수 있음
 - 단, 육류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섭취하고,
변비 유발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음
- 위암의 주요원인인 짠 음식 섭취 절제가 필요함